

세 번의 큰 이동으로 메시아를 낳은 히브리인

단군 민족을 숨겨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정

첫 번째 이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강물이 마주치는 곳 가까이 갈대아(Chaldea) 지방의 우르(Ur)라는 도시가 있었다. 이 도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일년 후에 켈의 자식으로 태어난 쌍둥이 엘람과 아수르 형제 중에 형 엘람의 후손, 카스디의 아들 우르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갈대아(Chaldea)의 지명은 우르의 부친 이름 카스디에서 유래되었다.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거룩한 신의 땅'이라는 의미로 '키엔기르'라고 불렀다.

히브리인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수메르인이었다. '수메르'라는 용어는 아마도 노아의 장자 켈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수메르인은 머리카락의 색깔이 검정색이었는데 그들 자신들을 일러 '검은 머리의 사람들' 즉 '상기'라고 소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서 언어가 '교착어'의 특징을 가졌는데, 우리말처럼 주어 뒤에 '은'과 '는'으로 목적어 뒤에 '을', '를' 등이 붙는 교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교착어는 우랄 알타이어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착어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언어가 터키어, 한국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살았지만,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신봉감을 하란에서 구했다

일본어이다. 그런데 터키어는 주변 민족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교착어의 특징이 많이 약화되었다.

우리나라 재야사학자 중에는 한민족이 수메르인이라고 주장한다. 한민족의 시조가 단군인데, 단군의 증조부가 수메르인 아브라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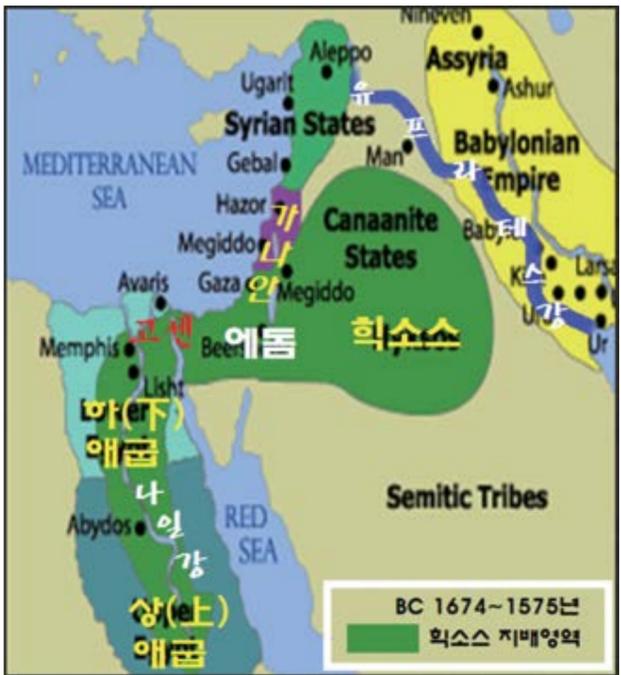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히브리'란 '물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수메르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첫 번째 이동)의 주인공이자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에서 출발하여 목축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중간 기착지가 '하란'이었다. 하란은 서쪽에 유프라테스강이, 동쪽에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으며 줄곧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오늘날의 터키 영토)

를 잇는 무역통로 구실을 해 왔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란에서 '나홀의 성(城)'을 형성할 정도로 번창한 가문으로 명성을 날리 떨쳤다.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 단지파가 한민족이다. 한민족의 시조 단군(본명은 단)은 '뱃단아'라 불리는 하란 외갓집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데릴사위 노릇을 14년이나 이행하면서 열두 아들을 낳은 곳이 '하란'이다.



두 번째 이동

히브리인의 (두 번째 이동)은 기원전 1876년에 시작되었는데, 야곱 130세 때에 가나안의 심한 기근을 피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총리대신으로 출세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애굽에서 야곱은 147세(BC 1859년)의 일기로 인종하였고, 요셉은 110세(BC 1805년)에 인종하였으며, 야곱의 장자 단(한민족의 시조 단군)은 140세(BC 1778년)에 인종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총리대신 요셉을 주장하여 바로왕으로부터 광활한 고센 지방을 할양받게 했으며, 그곳에서 요셉의 부친 야곱과 형제들을 거주하게 하는 동시에 고센에 거하던 토착 세력의 애굽인들을 멀리하게 하였다. 이는 히브리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총리대신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이집트)의 절대 왕

권이 급속히 쇠락하여 수년 만에 거듭해서 왕(王)의 교체가 잦아들었다. 급기야 요셉 사후 일백여 년 만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애굽왕국이 연맹을 맺은 이른바 '히소스인'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애굽왕국은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의 자손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마치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되는 나홀의 자손에 의해 세워진 나홀의 성(城)과 비견된다.

히소스(Hyksos)인이 이집트를 약 백년간 식민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12부족 가운데, 단의 부족(단지파)이 가장 번성하였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요셉의 아들지파,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등 이렇게 4개의 부족이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강성하여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4군 편제에서 대표되었다.

세 번째 이동

기원전 1406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했지만 중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모세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민 27:23). 그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120세로 죽고, 이듬해 기원전 1405년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여호수아 생존시 겨우 소라와 에스다울 두 지역을 점령한 곳에 광야에서 이끌고 온 약 심한 땅의 단지파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헬만산 남쪽에 있는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여 그곳에 단지파 백성들이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라이스 성읍을 조상 단의 이름으로 개명하여 단 성읍이라고 하였고, 단 성읍은 저 아래에 소라 성읍과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단의 진지)에서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 단지파 군대에 식량 공급과 병력을 지원하는 단지파의 후방 진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소라에서 출생한 삼손 장수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맡은



▲ 단지파 이동경로: 가나안 소라(BC 1248년 출발) → 시리아 → 이라크 → 이란 → 카스피해(영적으로 모세가 건너 출해 바다) → 알타이 산맥 부근(100년 내지 200년간 우거) → 몽고 → 만주 → 압록강(영적으로 여호수아가 건너 요단강) → 대동강변에 고조선 설립(BC 1,000년경)

지 20년째 되던 해(BC 1248)에 블레셋 나라의 미인계에 걸려들어 양쪽 눈알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 가시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때 기운이 센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육중한 신전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 두 개를 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블레셋의 고관 장수들과 더불어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쟁을 치렀으나 승부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단지파의 장수 삼손마저 죽게 되자, 단지파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원전 1248

년에 이스라엘 소라 땅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것이 단지파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를 배출하려는 하나님의 은밀한 전략에 의한 히브리 민족의 (세 번째 이동)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아시아에 하나님의 선민(選民)을 그냥 놔두면 히틀러, 뮐러, 스탈린에 의해 모조리 몰살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단지파로 하여금 동쪽 멀리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을 숨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의 예언대로 단지파에서 심판관세를 가진 메시아가 출현한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8>

“순종을 안하면 영생은 없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긴자 구세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안하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자기의 직분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다.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나는 영생 얻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꼭 해야 할 직분이 뭐라는 것을 알면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그건 불순종에 해당하는고로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기는 삶

일을 끝까지 못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그들은 인간이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들은 중의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하고 받아 가는 돈은 1달러(한화 약 1,000원) 미만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앞에 숙연함을 가지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도우려 해도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물을 꺼내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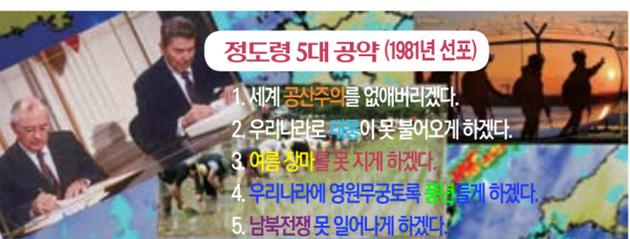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한다.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지금처럼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 다행히 우리는 문명인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집에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고 테러의 위험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사회적 여건을 탓한다면 그것은 분명 무질서와 타협해 버린 것이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1달러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꿈

을 잃지 않는 절박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탓하거나 환경 탓, 사람 탓을 해서 안 된다. 그나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에 감사하며 절박하게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은 성취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너무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며 작은 행복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원대한 꿈은 바로 지금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위대한 결과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무질서와 타협하지 말고 현재의 고통을 의연히 받아들여라. 일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일은 말은 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일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마하고 인간성을 키워준다.

모든 일 자체가 사회적 계약으로 신의 지킴을 수습하는 정신 수양이며 자기의 완성으로 일하는 자체가 곧 도를 닦는 것과 같다. 돈보다 귀중한 것은 인격의 완성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평생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기술을 갈고닦아 연마할 뿐 아니라 마음을 수습하는 과정이며, 자아를 실현하고 인격을 높이는 수단이다.*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귀국아 못붙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생미 불꽃 지게 하겠다.
4. 우리 뒤에 영원무궁토록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정도령 ≫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 44년이 지났을지 모르나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한 “風雲造化任意用之(풍운조화임의용지)” 갖추고 계시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가 하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들게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가지고 계시어 『적암유록 출장론(出諸論)』에,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이 44년째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족의 예언서 적암유록에는 정도령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